

좋은 변호사 · 성실한 변호사

고영민

이민법 전문 변호사
201-242-5588
후안 646-275-0474
460 Bergen Blvd. #100, Palisades Park, NJ

이민법 상법 파산

최운정 변호사
NY / NJ

(201) 592-7100
(917) 613-4540

애플치과

201-592-1046

201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뉴욕일보

Friday, May 20, 2011

<제 185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

은 방중... '후계' 굳힌다

듯... 창춘서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회동 가능성

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창춘에서 시진핑 (習近平) 국가부주석과 회동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이 북한의

차기 최고지도자로서 지위가 확고해진 상황에서, 내년 10월 제18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차기 국가주석으로 유력

해진 시 국가부주석과의 만남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 관련기사 A7면



미국인들, 한국문화에 빠지다... 코리아 아트 소사이어티, 이영희 박물관 관람

코리아 아트 소사이어티(회장 로버트 탈리)의 회원 20여명은 19일 이영희 한국문화박물관을 방문, 성경숙 박물관장의 안내로 박물관 전시품들을 감상했다. 한국문화에 대한 미국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수석부회장, 피슨스 스몰 오브 디자인의 로즈메리 오닐 교수, 언어학자 폴 타평박사, 아시아 텍스타일 전문가 데이빗 이, 도로서 진 판사 등을 포함한 많은 한국문화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이영희 박물관>